

무안군, 식량작물 종합평가회 개최

국내육성·신품종 식량작물 확대 보급 노력

무안군은 지난 26일 (사)쌀전업 농무안군연합회, 농촌지도사회 원, 선도농업인, 관계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량작물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식량작물 시범사업인 고구마의 전 과정 기계화 모델구축 시범사업의 현장 평가, 내년도 무안군 정부매입 품종인 새청무벼 증식포장 현장 평가, 논 타작물(콩) 재배 농가 우수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벼 연구시험포장에서 금년 벼농사 작

황 및 품종 특성에 대한 강의, 주요 병해충 방제 요령 등이 순서대로 진행됐으며, 발작물 기계화와 신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토론을 통해 내년 풍년농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들어 무분별한 외래 종자의 사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무안군은 벼, 고구마 등 식량작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육성 품종 확대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단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금년 벼농사는 생



육 중반까지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하였지만, 연이은 태풍으로 쓰러짐, 수발아 등이 발생하여 수확량 감소와 미질저하가 우려된다."며

무안=이기성 기자

장성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지방상수도 현대화·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선정

장성군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85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장성군은 환경부에서 주관한 '2020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165억 원 확보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돗물의 적수발생을 예방하고 누수를 줄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군은 확보한 165억 원(국·도비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상수도관 교체, 누수탐사 및 복구, 블록시스템 구축 등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신청 후 사업 선정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장성군은 환경부 주관 '2020년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도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20억 원(국·도비 14억 원)을 확보했다.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기름 및 수질오염 사고 등으로 취수원인 유평저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장성정수장 급수구역 주민들에게 단수 없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군은 확보된 총사업비 20억 원(국·도비 14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평립댐 공역상수도 송수관로와 장성정수장간 비상연계관로를 구축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성=박종영 기자



진도군, 무인방제기 활용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 실시

진도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드론과 무인헬기 등 무인방제기를 활용해 돼지축사와 축사 주변을 대상으로 일제 방역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26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대교에 거점소독시설을 지난 17일부터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차량 소독과 함께 추석 명절 이전부터 군민과 귀성객들에게 축사 출입 자제 홍보 캠페인을 비롯 축사 입구와 주요 도로변 등 38개소에 현수막 홍보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관내 29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약품 3.2톤과 생석회 39톤을 공급하고 예비용으로 생석회 4톤을 비축, 농장 현장에서 요구시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진도군은 축사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기 위해 500두 이상 전업농에 대해 무인방제기를 보유한 영농조합법인의 드론과 무인헬기 등을 활용,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진도군 보유 방역차량과 축협의 공동방제단 차량을 이용해 19개 소규모 농가에 대해 10월 중순까지 일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도=조성용 기자

함평군 "핑크물리 갯벌축제 늘려주세요"

내달 4일부터 5일까지 돌머리해수욕장서 개최

함평군이 내달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황금빛 낙조로 유명한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에서 핑크물리 갯벌축제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와 어촌어항협회가 주최하고 돌머리 어촌체험마을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는 함평에서 처음 열리는 갯벌 축제로, 지난

2017년부터 각종 SNS를 통해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함평 핑크물리와 친환경 생태 갯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생사진을 건질 수 있는 명소로 핑크물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축제장 내 핑크물리 정원이 따로 조성됐고 국화, 역사

등 100여 종의 가을꽃이 식재된 기존 주포 노을정원 역사밸리존도 인근에서 정상 운영된다.

이 밖에도 향토음식관, 마을음악회, 소망연날리기, 맨손 물고기잡기체험 등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자녀를 둔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도 가을 나들이 장소로 손색없을 전망이다.

손흥주 돌머리 어촌체험마을 위원장은 "핑크물리와 갯벌이 결합된 함평만의 독특한 매력을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축제

기간을 장검다리 휴일로 정했다"며, "핑크물리 외에도 갯벌탐방로, 오토캠핑장, 주포한옥마을, 해수찜 등 다양한 관광명소가 인근에 소재한 만큼 꼭 한 번 방문하셔서 소중한 추억 남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맨손 물고기잡기 체험행사는 4일 오후 3시와 5일 오후 2시 2회만 진행되며, 소망연 날리기 행사는 4-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함평=김광춘 기자

강진군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 교육



강진군이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170여개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위생·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농어촌관광산업의 큰 축을 이루는 농어촌민박사업은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결·친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가을 3대축제를 맞아 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위생·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고객관리, 전화응대 등 친절서비스 교육, 식품 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식재료·개인위생 관리와 식중독 예방교육, 농어촌민박 시설물 안전관리, 소방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최근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재난·화재사고 등의 예방과 위기대처 교육을 실시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은 지난 2015년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업주들의 서비스·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장-보고 야시장' 개장

완도5일시장서

완도군은 완도5일시장 활성화를 위해 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자 2019 섬남섬여들의 가을밤 장터 '장-보고 야시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장-보고 야시장'은 10월 2-4일, 10월 7-8일, 10월 16-17일 등 총 7일 간 열리고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이다.

장소는 완도5일시장이며,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사업단과 상인회 주관으로 운영된다.

'장-보고 야시장'에는 완도5일시장 상인과 올해 네 돌을 맞이한 장보고돛장의 장꾼, 그리고 전국의 청년 상인 등이 참여해 전통시

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과 손수 만든 제품 등을 선보여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발길을 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아이들을 위한 마술 공연과 비누·향초, 조병 만들기 체험 부스, 문화 공연, 이벤트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마련돼 오감을 만족시키는 완도의 가을밤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가을밤 장터 '장-보고 야시장' 등과 더불어 완도5일시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상인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 완도5일시장을 누구나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